

# 가상의 정원을 거닐다 메타\_가든 환상의 세계에 빠지다

검은 천을 들추고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순간이동하는 기분이 든다. 알록달록한 빛줄기가 쏟아지는 '소리의 나무' (정문열 작)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푸른빛의 나비족들이 자연과 소통하는 매개체인 신비한 나무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은 나무 대신, 광섬유와 LED를 활용해 자연과의 교감을 이야기한다. 길게 늘어뜨려진 색색의 광섬유는 나비족의 꼬리처럼도 보인다. 작가가 제작한 새 소리, 물소리까지 어우러지면 마치 미래 행성의 미지의 숲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에 빠진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다양 소색원의 대나무다. 영상 앞에 놓인 지반을 조작해 7월의 '어느 하루'를 입력한다. 화면 속 대나무 사이로 빛줄기가 쏟아진다. 기상청 데이터와 연결된 그 날의 날씨 정보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았을 '어떤 날'을 추억케 하는 금민정 작가의 '바람과 비,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열리고 있는 '메타\_가든'전(10월31일까지)은 독특한 체험형 전시다.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상의 '테크놀로지 예술정원'을 구현한 전시에는 AI,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하거나, 디지털 영상 설치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특별기획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가공' '초월' 등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의 '메타' 개념을 가려와 꾸렸다.

전시작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이 보는 작품은 무한 확장하며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소리나무'의 터널을 지나면 윤제호의 '휴식동굴'이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에게 심을 제공하는 '미래의 휴식' 공간에 들어서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레이저와 디지털 큐브 등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진다.

미술관 벽면 전체를 활용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거대한 수족관은 압도적이다. 이진준 작가

의 '모아나이아(MOANAIA)'는 남태평양 바다속을 묘사한 환상적인 작품이다. 화려한 컬러로 시작해 혼탁한 흑백으로 마무리되는 5분 분량의 작품은 실제 촬영한 영상과 AI를 활용한 편집이 어우러져 가상과 실재를 동시에 보여준다. 물 속에 잠긴 석상과 화려한 바닷속 생물체를, 바닥에 어를거리는 인간의 모습은 주류 세계사에서 소외된 오세아니아 문화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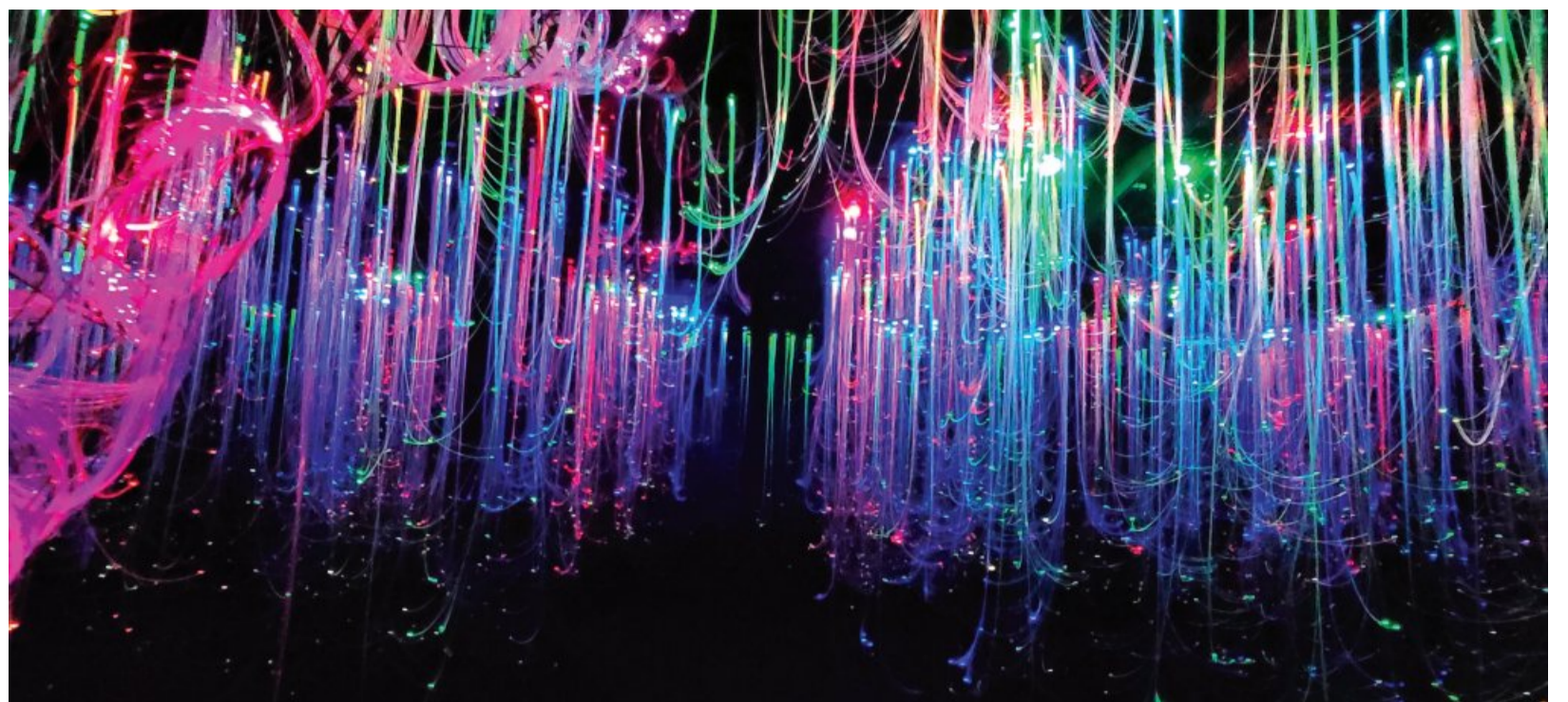
서상희의 '메타\_가든 속 가상정원'은 아날로그와 자연을 상징하는 실제 나무가 천정에 매달려 있고, 디지털미디어의 인위적 빛과 영상 이미지가 결합된 가상의 정원을 연출한 작품이고 박고은의 '식물의 몸짓'은 레이저 스캐너로 기록한 나무의 미세한 움직임

## 광주시립미술관 '메타\_가든'전 AI·빅데이터 기반 체험형 전시 이진준·박상화 등 11명 참여 10월까지 예약제 무료 관람

직임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상화 작가의 '공중비디오 정원' (5분)은 작가가 직접 촬영한 집과 무등산, 꽃 등의 영상이 천정과 바닥에 불규칙하게 걸린 박스 구조물에 프로젝션 맵핑 기법으로 구현된 작품으로 현대판 무등도원을 묘사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작품의 일부가 돼 바닥에 설치된 박스에 앉아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손봉재 작가의 '물소리바람 소리'는 남도의 정자 나무를 소재로 만든 디지털 나무들로 폴리카보네이트 위에 유화 물감으로 세세히 묘사한 나무들은 아날로그적 느낌도 전한다. 또 소수빈의 '신-생태계의 휴리스틱'은 센서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기계에 '식물'을 실어 지금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미래 식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밖에 수학적 원리인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 우주, 인간, 자연, 인공물의 존재 규칙과 원리를 보여주는 김형숙의 영상 작품 '근본적인 원칙' (9분 5초)과 미세먼지가 우리몸의 세포와 신경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맵핑 작업을 진행한 노상희 작가의 '우리사 사는 세계 v.2.'도 만날 수 있다. 무료 관람. 예약 필수. 월요일 휴관.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정문열 작가의 '소리의 나무'.



실재하는 나무와 영상으로 빛낸 나무가 어우러진 서상희 작 '메타가든 속 가상정원'.(왼쪽) 미술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영상 작품 이진준의 '모아나이아'.



## 꽃에 담긴 추억을 그린다

전남여성가족재단, 31일까지 안혜순전

노랗게 익은 살구나무를 보면 떠오르는 초등학교 친구와 참새, 가을이 깊어갈 즈음 한아름 꺾어 향아리에 담아두었던 썩부쟁이와 국화... 작가의 삶과 이를 따라 펼쳐지는 꽃에 담긴 추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지난 4월 진행된 공모전 '女新 나르샤'를 진행한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안혜순 작가의 '추억을 그린다'전을 오는 31일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사랑'

안 작가는 어느 날 지리산 둘레길에서 만난 산딸기를 보고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한아름 따주시던 산딸기를 떠올렸고, 이 기억을 따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유년과 젊은 시절의 다양한 추억을 캔버스에 소담하게 담아냈다. 전시에서는 '여름밤의 추억'을

비롯해 '유년의 추억', '사랑', '편지' 등 16점을 만날 수 있다.

광양 출신인 안 작가는 섬진강미술대전에서 특별상을, 전국 순천미술대전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다. 전시는 전남여성가족재단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260-7331. /전문재 기자 ej621@

## 두 번째 서른, 나를 탐색하는 시간

박용수 교사, 수필집 '나를 사랑할 시간' 펴내

관조의 삶·자연서 깨달은 의미 등 40여 편 담아

수필은 장르 특성상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직접 쓸 수 있는 분야다. 갈수록 문학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수필을 쓰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장르가 지닌 포용성, 개방성 등이 그만큼 오늘의 시대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요즘 들어 수필을 쓰는 동인들이 작품집을 묶어내는 일도 많지만, 새롭게 수필문학에 입문해 글을 발표하는 작가들도 늘어나는 건 그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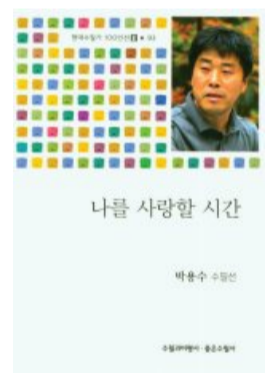
현직 교사인 박용수 수필가가 수필집 '나를 사랑할 시간' (수필과비평사·좋은수필사)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은 '현대수필가 100인선 II'라는 기획으로 출간됐으며 작가의 작품 40편이 수록돼 있다.

광주 동신고 국어교사로도 재직 중인 저자는 무등수필문학회 회장을 비롯해 광주문인협회 회원, 화순문학회 편집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수필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저자가 이번 수필집을 펴내게 된 배경은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과 무관치 않다. 애순이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와 그럼에도 내일을 향해 뚝뚝뚝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마음가짐 등이 오롯이 담겨 있다.

"벌써 두 번째 서른이다. 첫 번째가 흔들리며 요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호수처럼 잔잔하게 맞이해야 할 일이다.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면 이제 나 자신을 향한 조용한 속삭임이어야 한다. 그간 열심히 찾아다녔다. 모두 밖에서 해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찾지도 못했다. 그러니 이전 능숙하게 아주 차분하게 내 안에서 나를 탐색하고 얼마 남지 않은 주어진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시간' 중에서)

작품은 일상에서 취한 소재를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로 갈무리한 내용에서부터 삶을 바라보는 관조의 시선, 사물과 자연에서 깨닫는 소중한 의미를



다른 것 등 다양한 소재를 아우른다. 특히 '없음의 가치'라는 글은 저자의 삶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 넘칠 때까지 채웁니다. 마시고 또 마셔 토하도록 마십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이지요.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음으로 인해 굴러가고, 담기고, 누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비어있음은 없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있음입니다. 다만 비었을 뿐입니다."

한편 화순 출신 박 수필가는 광주일보 '수필의 향기'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일보 신춘문에 '아버지의 배코'로 등단했다. 광주예술문화상과 광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예세이집 '꿈꾸는 와발', '사팔뜨기의 사랑'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